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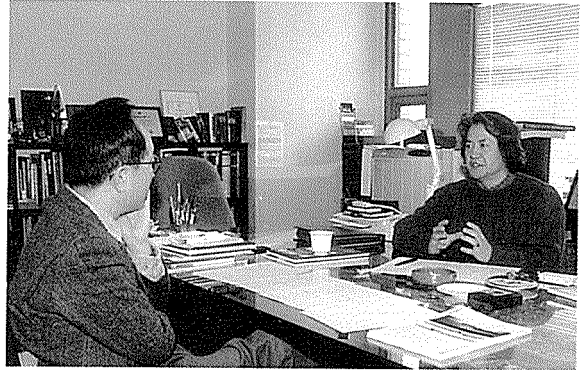
어둠속의 빛-건축의 새로운 지평

Light in the Dark-The New Horizon of Architecture

대담자 / 임창복(성균관대 교수)

일 시 / 1997년 1월 10일 오전

장 소 / 한울건축사사무소



(좌 : 임창복, 우 : 이성관)

임창복 _____ 대구 웨딩알리앙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웨딩알리앙스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작품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_____ 대구 알리앙스는 6개의 예식홀과 연회실을 갖춘, 말 그대로의 예식장 건물입니다. 건물을 배치상으로 봤을 때 대지의 남측면에서 일자형으로 대지의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적 이유도 있겠으나 추후 증축을 감안해 안쪽으로 배치된 것이며, 기본 입방형의 매스에 타원형 볼륨이 장축 방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의 동적인 형태의 속성과 가볍고도 투명한 유리의 재질감을 결합하였고, 이러한 외관상으로 솔리드한 매스와 투명한 속성 두 개의 대비적인 효과로 읽히는 결합은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를 드러내도록 구성하여, 타원형 유리재료의 공용부분에서는 사람들의 '만남'이나 '흐름'이 이루어지고 본 예식은 솔리드한 매스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건한 예식이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실의 독립성과 끊임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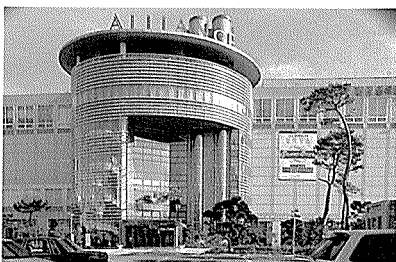
흐르는 사람들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전면의 타원형의 볼륨은 재료상의 대비효과나 void 한 효과만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를 통해 보여지는 동선의 흐름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적인 성격을 도시의 일부로 끌어들이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투명한 볼륨은 야간시에 그 자체가 도심 속의 조명의 역할을 하며 주변과 소통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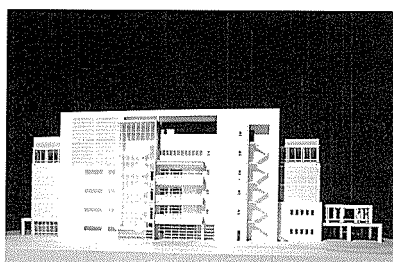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특별히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이성관 _____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들릴지 모르나 저는 여기서 출발하였습니다. 즉, 이 건물은 하루중 24시간 내내 '서있다' 는 사실과 그 24시간속에는 태양빛이 끊어진 시간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쓰임의 시간대를 넓히려는 전략과 야경이란 문맥에서 도심 속에서의 역할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기존 예식문화의 전형적인 개념을 상세히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거기에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특히 기존의 예식문화가 낮시간과 주말에 국한되는데 반해서, 주차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밤까지 연장시켜 밤으로까지 지속되는 건물을 계획하였습니다. 즉 한 건물의 이용



대구 웨딩알리앙스



대구 웨딩알리앙스 모형



대구 웨딩알리앙스 전경

cycle을 생각하여 건물의 형태나 구성 등의 건축의 표현적인 측면만이 아닌 프로그램 자체에까지 많이 고려하였습니다. 즉 도심가로에 코너에 면해있는 위치 등의 입지조건들을 감안해서 도심 야경 속의 '건축화된 조명'이라는 개념을 설정했고, 야간까지 프로그램을 연장시켜 그것과 더불어 밤의 도시속에 발광체로 기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도시에 있어 건축은 주어진 전형을 극복하여 그 자체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실험적 모색이 있어야 하고,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위의 환경에 적극적인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임창복 _____ 제 생각으로는 야간에까지 건축의 기능을 연장시키고 야간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은 참 흥미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시각은 어떻게 보면 일본 오사카에 있는 다까마스 신의 기린타워가 도시문화 속에서 기능할 수 있는 건물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대구의 도심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대구알리앙스를 야간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창복 _____ 전체 평면을 보면 예식 등 주 기능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순환동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그 외부에 위치되어 있는데, 평면을 구성할 때 특별히 의도하신 것인지 궁금하군요.

이성관 _____ 건물 전체의 선형적인 형태는 장래 증축에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형태에서 예식이 일어나는 선형의 공간과 그외 동선을 분리한 것은 주어진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가장 유용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즉 예식행위가 일어나는 served space와 그것을 도와주는 servant space같은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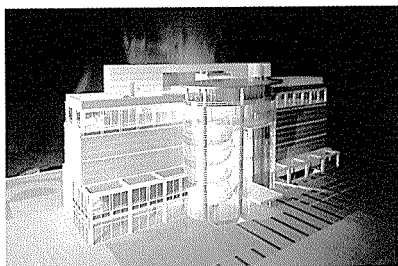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식문화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잔치라고 해서 나름대로 하객과 그날의 주인공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가 되었었는데 반해 오늘날에는 각자의 입장이 분리가 된 듯한 형식의 예식장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식장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져야 하는지 즉, 건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랑 신부와 하객과의 관계나 만남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갖고 작품을 하신 것인지 궁금하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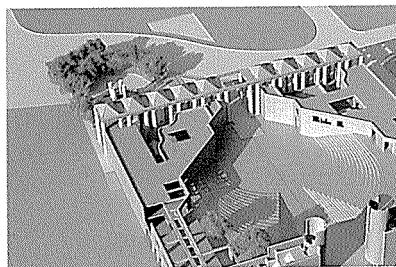
이성관 _____ 우리나라에서 예식의 형식과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개별적 행위와 습관이기도 하지만, 사회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나의 관습이기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를 한참 벗어나서, 건축적 제안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을 해석하면서 요구되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건축적으로 더 명쾌한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대구의 예식문화가 소비적 성향이 강한 편이고 예식홀도 12개씩이나 있는 대규모 예식장이 있는 지역이기에 기존과 달리 이곳에서는 가능한 한 예식에 있어 사람들이 기대하는 흥겨움과 함께, 경건함과 격조가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임창복 _____ 보통 예식장하면, 그날의 주인공들은 앞에 나가있고 하객은 마치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처럼 앉아 있는 타입의 공간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극에서의 아래나 타입으로 둘러싸여 진행되어도 예식 자체엔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우리의 경우 예식공간이 앞뒤로 분리된 것만을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축적 고려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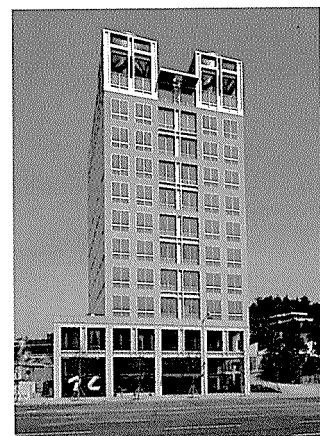
이성관 _____ 저는 예식의 장소는 의식이



대구 웨딩 알리앙스 모형



Fort Landerdale Plaza 모형



부일동통신사옥

이루어지는 공간인 교회 등과 마찬가지로 일방향 축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같은 집회의 성격을 갖지만 방사형의 평면이 가능한 공연장, 극장 혹은 강당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즉 예식장은 주례- 혼인 당사자- 하객의 3단계의 영역으로 공간적 깊이감에 따른 일방향성을 갖게 되고 또 이러한 성격은 예식의 형식(혼인 서약, 하객인사) 과도 부합되므로, 전통적인 장방형의 평면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예식홀의 폭과 깊이는 그 규모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필요한 깊이감을 주기 위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임창복 _____ 작품을 보면 장방형과 원형이 결합됨으로써 전체가 변화감이 있고 나름대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원형과 장방형의 조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작품 속에서 보여집니다. 특히 동국대 현상안이라던지, 강릉종합터미널과 같은 작품에서도 원형과 장방형의 조합에 의한 조형적 접근이 엿보이는데 평소 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지요.

이성관 _____ 저는 형태와 재료의 구성에 있어 단조롭지 않고 긴장감과 활력을 주는 대비적인 병치를 즐겨 쓰는 편입니다. 여기서도 황의 장축의 불투명한 부분과 거품같은 투명함을 대비시켰고 형태적으로는 장방형과 타원을, 재료에 있어서는 불투명하면서도 부드러운 재료인 돌과 차고 딱딱한 유리를 대비시켰습니다. 돌과 유리를 사용한 것은 그것들이 현대적인 재료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말씀드린 프로그램의 해석의 결과 나온 것이며, 여기서는 돌을 구조재로서 얽혀지는 역할이 아닌 마감재로서의 질감자체만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벼운 평탄면의 마감재의 개념으로 표면을 처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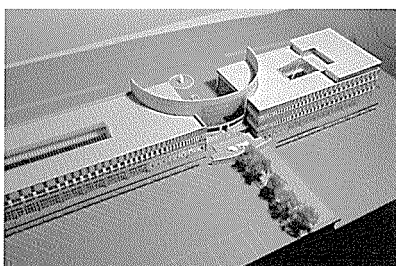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적인 측면에서의 빛의 방향에 따라서 곡면이 갖는 변화에 대한 관심을 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림건축에 있었을 당시에 담당했던

창원시청사에서도 격자형 박스에서, 중간 좌우측의 입구에 원통형태를 관통시킨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떤 때는 밝았다가 곧 어두워지는 변화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완전히 그림자가 진 뒤에는 변화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반면에 타원이라는 것은 빛의 위치에 따라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항상 시계가 움직이듯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모미를 느껴왔습니다. 제 작품에서는 원이랑게, 빛과 연관해서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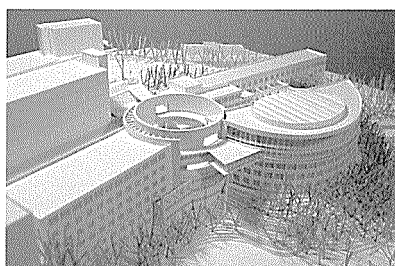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특히 나눔에 대한 고뇌의 흔적이 엿보이는데, 그 표피의 나눔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_____ 일단 입면과 재료가 정해지면 결국 현장에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공업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판재의 사이즈나 중량이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남게되고 그 과정에서 그 재료의 정해진 크기나 줄눈의 흐름은 디자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벼운 경량재의 메탈릭한 부분과 압축재류의 속성을 지닌 돌, 그리고 유리 등은 고유의 물성을 갖고 있으나, 어떻게 쓰이고 표현되느냐에 따라 외피전체 속의 그 역할은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피의 얽혀짐에 있어서 중력을 인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항상 사과는 떨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무게를 느끼게 되는 표면이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현대건축에 와서 그러한 중력의 개념에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힘의 흐름을 보여주고 싶어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직적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축적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저의 성향이지, 과거의 스타일을 다시 구축하려거나 시간을 돌이켜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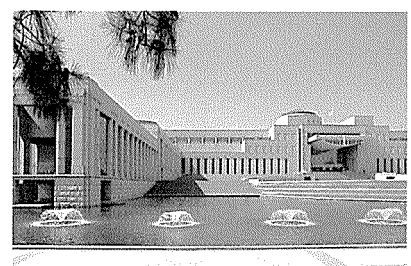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어떻게 보면 전쟁기념관은 해



강릉종합터미널 모형



동국대 100주년기념관 현상안 모형



전쟁기념관

방 이후 석재로 된 건축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는데 석재의 표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_____ 전쟁기념관에서 작가로서 가졌던 외피의 이미지는 도심에서 바라볼 때 ‘녹지 건너편에 놓인 큰바위의 양피’가 개인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석조가 갖는 무게감이 유달리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석재를 마감재로 덧붙인 가벼운 질감보다는 그 자체에 무게감을 주어서 영속성을 표현하고 싶었으며 구축된 이미지나 깊이감이 힘을 보여주는데 좋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작은 어차피 마감재로 현대 테크놀로지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워킹집 자체는 구축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임창복 _____ 이 소장님의 작품에는 상당히 정리되어진 디테일을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한 스티디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이성관 _____ 저는 프로그램에 따라 초기의 기본 계획안이 정리되면, 큰 축척의 모델과 스케치의 수정작업 속에서 많은 시간을 디테일의 모색에 사용합니다. 재료의 종류와 입면의 성격에 따른 외관의 효과적인 연출방법을 모색하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건축의 ‘빛’을 주고, 완성도를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의 건축에 있어 외관은 도시의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비슷한 볼륨의 매스의 건물이라도 디테일의 맛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는 표정을 갖게 되므로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임창복 _____ 소장님의 작품을 보면 초기의 전쟁기념관에서 분당연립주택, 근작 부산방송국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작업들이 재료의 선택과 형태구성에 있어서 작품경향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성격으로 제한되는 것을 꺼

려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디자인 논리가 있는 것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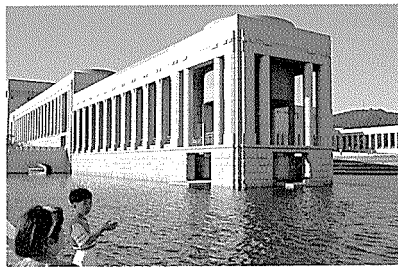
이성관 _____ 저는 한 작업을 시작할 때 항상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안을 발전시킵니다. 이것은 고정된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그때 그때 프로젝트의 여건과 상황,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료와 공법, 형태에 있어서 현실적인 최적해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은 그 자체의 형태적 완결성뿐만 아니라 준공후 실제로 사람들이 안에서 기능하게 되어야 실제로 건축의 생명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의 쓰임에 대한 배려를 항상 중시하여 실제적인 관점에서 여러 다양한 어휘의 선택적인 수용을 꺼려하지 않는 편입니다.

임창복 _____ 소장님의 전쟁기념관과 같은 초기의 건물로부터 최근 부산방송국과 부일이동통신 등을 비교해보면 재료의 사용에 있어 돌에서 알루미늄의 사용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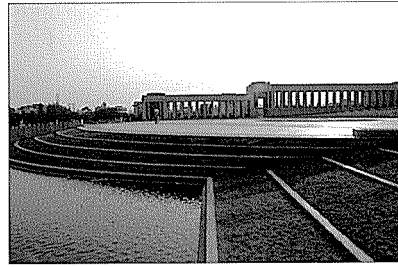
이성관 _____ 방금 전 말씀 드렸듯이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그 해결책이 서로 각기 다르고 여기엔 다양한 재료도 포함됩니다. 항시 여러 재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려 노력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도 유지 관리가 되지 않거나 기후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석재, 알루미늄 그리고 유리 등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먼지가 적은 지방에서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드라이비트나 노출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구성과 유지 관리 측면이 항시 신경이 쓰입니다. 준공후 찍은 사진이 그 건물의 전부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루미늄의 빈번한 사용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프로젝트 각기의 상황 때문에 쓴 것이며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재료를 쓸까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임창복 _____ 평소에 건축의 접근을, 문맥적 상황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전쟁 기념관은 문맥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문맥적 작업에 충실하려고 하는 자세와 전쟁기념관과 같이 새로운 문맥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성관 _____ 저는 말씀하신 문맥적 상황을 도시에서의 물리적인 혹은 시각적인 문맥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그 시점에서의 어떤 형식적인 혹은 가치 등의 문맥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싶고 그래서 그 시점의 총체적인 측면 모두를 합해서 상황이라고 편하게 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아닌 그 총체적 상황에 어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건축주의 프로그램 등도 어쩌면 상황에 속할 수 있다고 보며 그 속에서 적합함이나 어울림을 찾는 것이 저의 작업이 아닌가 봅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제가 했던 것은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으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지고 쓰이게 되느냐 보다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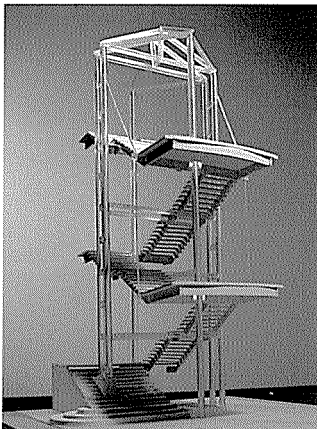
주변이 혼란스럽고 왁자지껄 하면 산만해지고, 더군다나 그런 종류의 건물은 일반 도심내의 건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과 정돈된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더 주변과는 다른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사찰이 도심 근처에 사찰만이 달랑 놓여 있는 것과 산길을 거쳐서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기념관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했고 그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쟁기념관의 대지는 깊이가 없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전시관까지의 전이과정에서 정서적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스케일과 과정적 공간을 거쳐서, 박물관적인 전시실을 통하게 했습니다. 넓은 바닥이 아무런 수직적 요소가 없이 계획된 이유는 우리 도시 자체가 워낙 밀집되

어 있기 때문에 그와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을 제시했던 것이며, 만약에 사막 같은 곳에 있다면 굉장히 밀집된 오아시스를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사막자체의 고유한 가치가 절대적이 아니며, 만일 종로 한복판에 사막 한 조각을 위치시키면 하나의 청량한 공백으로 남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창복 _____ 전쟁기념관의 입구부분 같은 공간을 '마당' 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광장이라고 해야할지 평소 생각하고 계신 공간개념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_____ 마당과 서구의 광장은 둘다 모두 '쓰임의 공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모이는 넓이 만큼의 큰 쓰임을 위한 장소, 즉 실용적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쟁기념관에서 제안한 것은 비워진 공백의 공간으로 의도되었습니다. 경질의 바닥질감이러든가 크기로 인하여 물론 여러 사람이 여러 용도로 쓸수는 있겠지만 전체구성에서 동적인 성격의 공간이 아니고 빈공간을 홀로 걸을 때 느끼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충격 효과를 위주로 한 공간이기 때문에 마당이나 광장하고는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당은 본질적으로 쓰임을 위해 있는 공간이지 쓰임이 없을 때는 현상적으로 비워져 나타날 뿐이며 그 날개 공간의 속성은 실용적인 혹은 세속적인 공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쟁기념관의 입구부분 공간은 과밀한 도심에서 예기치않게 텅빈 광대한 공간을 접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충격을 유발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목적으로 도입된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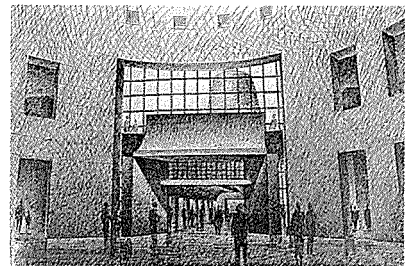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작품을 하실 때 모델작업이나 스케치 작업중 어느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특히 스케치에 있어 전체 형태에 대한 스케치라기 보다는 부분 스케치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편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인지 궁금하군요.



전쟁기념관 부분 모형



전쟁기념관 내부



전쟁기념관 부분스케치

이성관 _____ 모델이나 투시도는 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써 최종적으로 대지에 건물이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건축가에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둘 다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모델은 수시로 변하는 시각에서 최종결과를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만 맛을 보여주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시도나 스케치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응고된 하나의 부분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맛을 체크하기에는 유용한 도구라 하겠습니 다. 이 모두는 사실성을 보여주는데 있어 중요한 것들이기에 즐겨 사용합니다.

임창복 _____ 말씀을 듣고보니 건축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수단으로써 건축 전체 뿐아니라 부분까지 2차원 이 아닌 3차원적 접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창복 _____ 특별히 작품에 영향을 미친 좋아하는 외국건축가가 있으신지요.

이성관 _____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사람이기보다는 작품을 보면서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경우가 많 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웃음) 표현이 애매한지는 몰 라도 작품을 대하면서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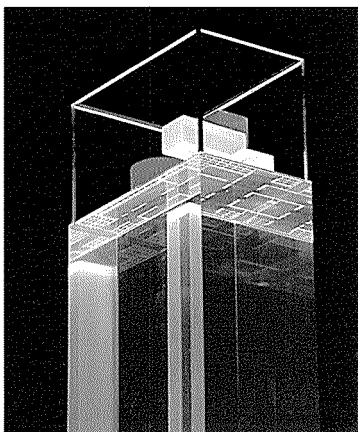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화제를 돌려, 최근의 건축이라 는 것이 지역성과 관련시켜 새로운 모더니티의 추구에 대한 관 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모든 작가들이 추구해야 할 명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건축가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_____ 지역성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총체적 상황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좁은 의미에 서 특정재료나 형태 또는 색채가 사용된 건축을 지역성이 있다 고 하여 크게 틀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새로운 재료와 삶의 방식을 생각할 때 상황을 깊이 인식 하고 건축을 하느냐가 곧 광의의 지역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지구의 반대편에 지어진 건물이 서울의 그것과 유사 하더라도 둘 모두 각기 가진 상황을 해석하고 풀것이라면 그것 이 곧 말씀하신 지역성의 해석이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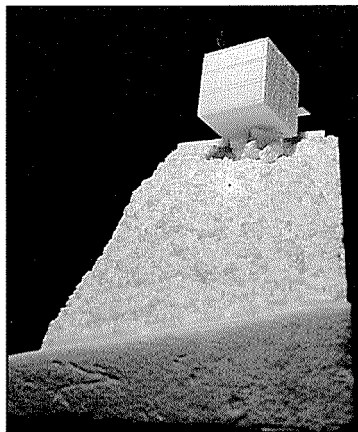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그렇다면 범위를 조금 좁혀 형 태적인 면만으로 국한시켜 본다면 과거 건물의 모티브 - 예를 들면 지붕이라든지 - 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 지고 계신지요.

이성관 _____ 80년대 초부터 말까지가 소위 건축에서 말하는 협의의 포스트모던의 영향이 강했던 시기로 생각되는데 이때 전통문제나 문화문제, 다시 말해 이미 과거부 터 있어왔던 것들을 어떻게든 연관을 맺게함으로써 긍정적 가 치를 찾아보겠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 다. 지금은 그것마저도 많이 희석되어 버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지붕이나 마당등의 얘기만 나와도 지붕이나 마당만이 전통이냐는 식의 비판이 나오곤 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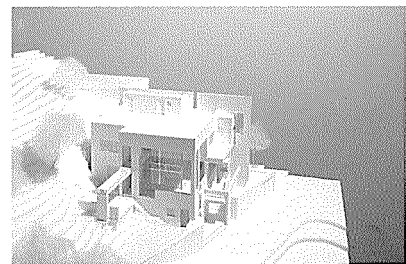
예로 '나는 이 건물에서는 지붕의 도입이 적절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현대의 문맥에서 엮어보겠다' 라는 등의, 작가가 용기를 갖고 실험할 수 있는 기 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다 실제적이다라는 평가가 아니고 처음부터 옳다 그르다라고 재판을 해 버림으로써 엄두조차 못내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에 맞는 조형 이고 그에 맞는 재료나 공법이 따로 있고, 오늘날에는 모든 여 건이 달라졌는데 이게 왜 재현이 되어야 하느냐, 왜 거기서 모



4·3그룹 전시회-지상 43m의 家像



N.C.C Folly



평창동 주택 모형

티브를 찾아야 하느냐 라면서 연역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작가가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삼는 것을 적어도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로 그 건물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식의 평가는 있을지언정 모티브로 정한 것 자체를 따지고 드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더니즘 역시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선각자인양 배워와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놓고 왜 우리가 가진 것에 손을 대면 안달을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임창복 _____ 현대건축의 흐름속에서 우리 건축가들이 어떤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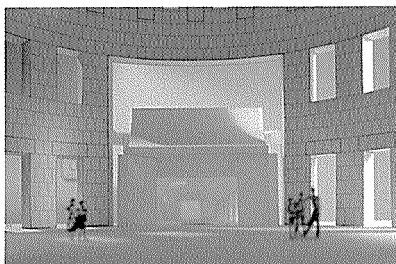
이성관 _____ 우선 과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작품들을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논리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 흔적들이 분명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레벨속에서 과거를 절대 평가하거나 논하기는 곤란하며 특히 우리나라 같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은 나라에서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선진이니 후진이니 갈라 말하기가 힘든 것이고 다양성의 존재 여부만을 놓고 따져본다면 아직은 우리 건축계가 다양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직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뒤쳐져 있는 것들이 과연 교육의 문제이나, 작가 개인의 노력부족이나를 따져보기에 앞서, 35세의 같은 나이의 건축가라 할지라도 국내 건축가의 경력은 건축에 입문한지 10년밖에 안되고 외국은 35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자인화된 환경속에서 태어났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디자인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성상 디자인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배어 있는 것을 표출해 내는 작업이기에 우리도 좋은 건물들을 주변에 하나 둘씩 늘려나가다 보면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라나는 한 두세대 후에는 보다 훌륭한 건축가들이 탄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즉, 디자인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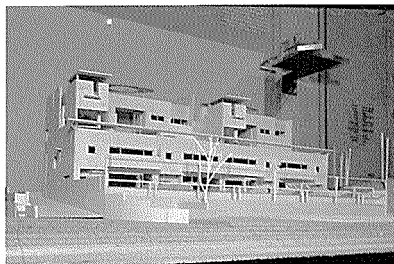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국제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축설계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설계사무소의 경쟁력, 강점, 개선해야 될 점 등에 대해 꼭 작품적 시각이 아니더라도 뉴욕사무소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무소와의 현실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_____ 근래 UR이니 어쩌니 하는 현실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외국의 잘된 곳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한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이 취약하고, 또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나이라도 10년 경력과 35년 경력에서 오는 문제점과 열심히 하지 않는 풍토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 자체가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점차 질을 따지는 추세이고 건축주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의 것이 잘됐다하더라도 재료의 문제 등 한계성을 들어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교보빌딩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고 건축주들의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욕심이 있고 문화적인 건축주라면 당연히 국내 건축가를 불신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건축주만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느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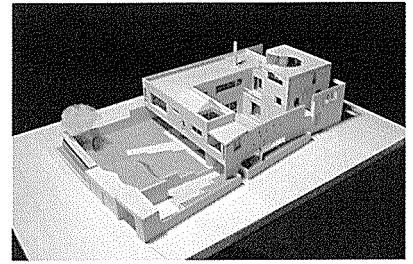
그리고 사무실 조직에 대해서도 그나마 조직이 모아지지 않고 분산되는 것도 경쟁력 약화의 원인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사무소를 개설한다거나 사무소간 연합이 안되



전쟁기념관 내부



분당주택전람회 연립주택 모형



분당주택전람회 주택 모형

므로써 외국이 국가레벨에서 공격을 하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조직적인 측면도 취약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축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조직이 성장했다가도 그 구성원이 하나 둘 빠져나가 개업을 하려들기 때문에 결국 프로패셔널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건축을 생각했다면 욕심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조직이 분산되다보니 소규모 사무소는 많은데 중규모 사무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 탄탄한 조직의 외국사가 포트폴리오나 브로셔를 내보이면서 들어오면 경쟁에서 밀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명도가 떨어지고, 그동안의 호경기로 인건비가 상승한 가운데 외국사와 견주어 대등한 설계비를 요구하다 보니 안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창복 _____ 최근 대학의 건축학과 커트라인이나 지방생 숫자가 상당히 높은 것만 보더라도 건축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축 교육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경쟁력을 갖기위해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성관 _____ 입시에서 건축학과에 대한 응시율이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의 건축분야에서는 이미 하강곡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사실과 같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최고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군요(웃음).

열의가 높다는 것은 우리 건축계를 위하여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요즘 학생들은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정보채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채널을 갖고 있듯이 교수님들도 옛날보다는 훨씬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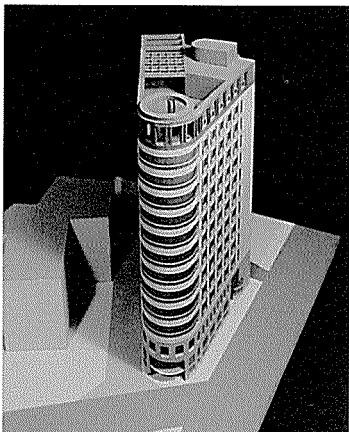
한 조건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이나 졸업한 건축가 지방생들에게 너무 남을 의식해서 화려하게 변신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끈기있게 열심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건축설계는 단시일내에 천재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며 형태만 주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태 구성 행위로서의 건축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나 동시대의 고민을 함께 담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이론적으로 배운 건축만이 진짜고 지어진 현재의 도시는 문제점 투성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해외 건축잡지에 소개된 건축작품이나 Competition에서 나온 작품에만 익숙해져서 거기에 강박관념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너무 화려한 것만 잡으려 들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소중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붙여서 키워나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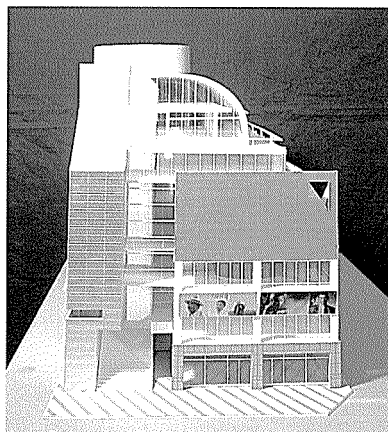
책 한권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서 작가와 동등해 질 수 없듯이 자기 것을 조금씩 키워나갈 때 진정한 자기것, 자기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능력만 있다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몸에 배게 풀어내는 것은 하나의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빛어내는 것은 하나의 실천력이나 마친가지라고 봅니다. 머리속으로는 아무리 좋은 사상이 있어도 형태를 꼬집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론가일뿐 작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한발한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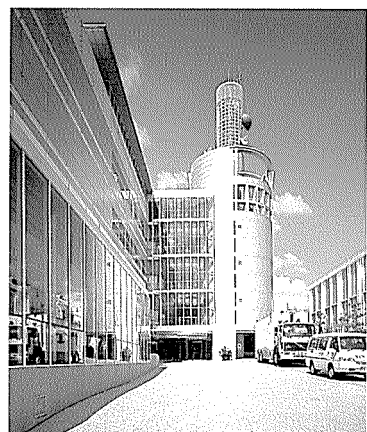
임창복 _____ 그렇겠지요. 장시간 여러 가지 유익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구 대성빌딩 모형



의정부 국도빌딩 모형



부산방송국